

미래 미디어 트렌드 핵심은

소셜 퍼스트·모바일 온리·테크 저널리즘



2020미디어 트렌드

이창민 지음

카드뉴스, 로봇과 드론 저널리즘, 스트리밍, 라이브 비디오 등...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이다. 디지털과 ICT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외 미디어 환경은 '급변'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설립된 지 이제 갓 10년이 지난 페이스북의 지난해 월간 활성 사용자수는 15억 9000만 명으로 집계됐다. 기존의 미디어 매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급력을 자랑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데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전통적인 언론매체의 장악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카카오톡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중앙 일간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민 씨가 펴낸 '2020미디어 트렌드'는 혁신과 파괴의 새로운 미디어 세상에 초점을 맞춘다. 현직 기자가 현장에서 느끼고 체득한 인사이트를 담은 미래 미디어 트렌드 보고서인 셈이다.

이제 이야기와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미디어는 그 자체로 '권력'이자 '돈'인 세상이 다가왔다. 앞으로 미디어가 어떻게 변화할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저자는 현재부터 2020년까지 지속될 미디어 트렌드 핵심으로 '소셜 퍼스트', '모바일 온리', '테크 저널리즘' 세 가지를 꼽는다. 지금은 동영상 하나가 유튜브에 올라 공유되면 전 세계에서 1000만 회 이상의 클릭이 나오는 시대다. 한마디로 소셜 미디어 전성시대다. 기업이나 기성 언론이 제품의 홍보나 콘텐츠 확산 전략으로 소셜 미디어 활용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셜 퍼스트' 정책을 펴야 하는 이유다.

미디어 도구의 측면에서는 모바일 전성시대다. 2015년 국내 PC 이용률은 49.2%에 그쳤지만 모바일 기기 이용률은 73.5%를 기록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보도를 하며 일부 언론은 각각 네이버·카카오와 협업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뉴스 전성시대를 꼽을 수 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습관적으로 뉴스를 보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뉴스가 기술(테크·tech)과 만나 날로 진화하는 데서 알 수 있다. 로봇, 인공지능, VR, 드론 등을 활용한 보도가 일상이 돼 순안에서 펼쳐지는 '테크 저널리즘'이 이제 꽃 피울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한스미디어·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혼자가 더 편한 사람들의 사랑법

미하일 나스트 지음



요즘 대세인 키워드로 '혼자'를 꼽을 수 있다. '혼밥' '혼술'이라는 말이 보편화된 것만 봐도 그렇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혼자'는 주요 테마가 된 지 오래다.

주위를 둘러 봐도 1인가구가 적지 않다. 늦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이상하거나 부끄러운 시대는 아니다. 1인가구가 2인가구, 3인가구를 제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만 봐도 그렇다.

몇 년 사이 1인가구가 대폭 늘었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타인과 감정 교류가 불편한 세대들은 사회관계망 '개인의 감정'을 더 중요시 여긴다. 그러나 이들은 혼자는 외롭지만 둘은 불편하다는 다소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셈'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다 더 이상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한다.

싱글남녀의 다양한 연애 사연을 매개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특성과 문제점을 보여주는 책이 나왔다. 독일의 저명 칼럼니스트 미하일 나스트가 펴낸 '혼자가 더 편한 사람들의 사랑법'은 연애불능의 원인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책은 출간 즉시 독일과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혼자'에 대한 기발하고 매력적인 통찰이 담겨 있다. '연애불능세대, 사랑에 대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혼자가 편한 사람들의 일과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혼술남녀'는 청춘의 좌절과 성공의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tvN제공〉

저자는 '연애불능'은 연애 경험이 없거나 스킬이 부족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고 진단한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담감 등 다양한 원인이 연애관계를 유지할 수 없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나 자신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상대에 대한 책임감은 과도한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즉 연애가 자아실현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두려움이

앞선다. 그로 인해 상대와의 거리를 두게 되고, 감정을 주지 않고 파트너를 바꾼다. 지속적인 연애보다는 일회성 만남에 익숙해진다.

책에서 언급된 '연애불능'의 사람들은 연애에 대해 까다로운 요구와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다. 반면 상대를 향한 헌신과 노력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저자는 완벽은 도달할 수 없는 상태며, 완벽한 사랑이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 사회에서 "사랑은 그러한 구조를 탈피하고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며 "더 나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자각"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서로 원하는 것의 불균형은 궁극적으로 상처를 가져오지만, 이것도 결국 사랑의 관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또한 연애를 하는데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라고 지적한다. 많이 생각하고 이리저리 저울질하다 보면 뒤로 미루게 된다. 항상 변경거리를 찾으며 "지금은 아니야" 하는 말로 자신을 결연한다. 이런 생각은 결국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을 빼앗아 갈 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기 마련이다. 일례로 서른 살은 많은 경험을 축적한 나이다. 괴로움, 불행, 슬픔 등 다양한 경험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자신 없어 한다. 이면에서 더 이상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놓여 있다.

"철학자 한병철은 '디 차이트'지와의 한 인터뷰에서 매끄러운 것이 현대의 특징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 현대 사회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말이다. 그는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것들, 이를테면 브라질리언 확성, 애플사의 제품들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표면 등이 지닌 공통점이 매끄러운 표면이라고 말했다. 어떤 훼손도 피해야 할 것은 매끈한 표면, 사랑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연애를 할 능력과 준비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고통 받을 준비도 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고통 받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

〈북하우스·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류 최초 법의학자 '송자' 인생 바탕 역사추리소설



시체 읽는 남자

안토니오 가리도 지음

때는 13세기 송나라.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세상의 천대를 이겨내고 중국 최고 명판관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이가 있다. 인류 최초의 법의학자라는 평가를 받는 '송자'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미신과 유교적 문화 때문에 해부는 물론이고 의술마저 터부시되던 시대에 과학적 수사 방법과 검시법을 체계화하여 역사상 최초의 법의학서인 '세원집록'을 집필했다.

1247년 간행된 '세원집록'에는 시체를 해부하는 법, 현장검수의 중요성, 판관이 경계해야 할 것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법의학 기술과 방법, 사용 기구와 준비 과정, 의례와 법률 등을 모두 집대성한 보고서다.

스페인 최고의 역사소설가로 평가받는 안토니오 가리도가 펴낸 '시체 읽는 남자'는 송자의 인생을 바탕으로 한 역사추리 소설이다. 2012년 사라고사 국제 역사소설상을 수상했고 2014년에는 프랑스 최고 외국 역사소설에 선정돼 그리프 누아르상을 수상했다.

수사관인 송자는 가진 것도 없는 데다 믿었던 이로부터 배신을 당한다. 용의자를 잡으면 증거가 없어도 자백을 할 때까지 때리고 허를 뺀아 고문하던 시절, 그는 자신만의 수사법을 동원해 범인을 찾아내는 일에 전력을한다. 모두가 피하려 하는 죽음의 비밀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송자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레드스톤·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자유주의 근본인 개인의 양심과 자유 추적



개인의 탄생

래리 시네톤 지음

서양에서 개성과 자율,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씨앗을 뿌린 것은 기독교였다. 신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평등하다는 성경 내용이 그 전까지 가부장적이던 사회 조직의 방향을 틀어놓기 시작했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개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래리 시네톤은 그의 저서 '개인의 탄

생'에서 사회적 신분이 아닌 개인이 사회를 조직하는 역할을 맡기까지의 긴 이야기를 들려준다. 책은 한마디로 자유주의 역사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는 자유이며,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자유란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서 인간이 반응을 누리게 하는 원천이기도 하고 동시에 공공선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게 할 수도 있다.

책은 고대의 도시국가에서부터 현재까지 2000년에 이르는 자유의 탄생 여정을 '개인'이라는 주제를 매개로 풀어낸다.

〈부글북스·2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트라우마 매커니즘 이해하려면 3대 가족사 탐색하라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마크 윌린 지음

지난 2015년 8월,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갑자기 어려운 충격적 기억이 마음에 남기는 상처, 즉 트라우마가 당사자는 물론 그 자녀에게까지 생물학적으로 유전된다"는 내용이었다.

정신적 외상이 실제 몸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전자에 기능하는 방식에 변

화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세대에 걸쳐 대물림된다는 기사는 과학계는 물론 대중에게도 충격을 안겨줬다.

가족 트라우마 유전 분야의 선구자 마크 윌린이 쓴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는 트라우마의 근본적인 원인과 숨은 매커니즘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3대에 걸친 가족사를 탐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레이철 예후다 연구 사례를 비롯해 미해결 상태로 남은 가족 트라우마가 세대에 걸쳐 대물림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최신 연구 결과를 망라해 살살이 다룬다.

〈심심·1만7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0-3600-9955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선(D) 대산프리모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한국방수협회 연구원 고서 제2008-24호에 저자한
방수성능시험 합격 제품!

5분 이상 물로 가압해도 물이 스며들지 않고
면역 들어가지 않는 실험 동영상 업로드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벽이스카넷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페이지 패러라할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2/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과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연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